

# 켄텍, 지역 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1회 산학 네트워킹 행사 개최  
삼성SDI·한전 등 기업 기술 발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협력 본격  
산학연 협력 플랫폼 역할 강화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최근 본교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산학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켄텍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학·연 협력 기반을 넓히고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18일 켄텍에 따르면 최근 본교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산학 네트워킹 행사 '켄텍 에너지 이노베이션 링크(KENTECH Energy Innovation Lin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RE100산업단지 확대에 맞춰 분산형 전력망 분야의 기술 과제를 공유하고, 산·학·연 에너지 산업 협

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도 에너지 정책 브리핑을 비롯해 삼성SDI·효성중공업·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기업 기술 발표와 켄텍 'K-Grid 인제·창업 벨리' 조성 기반 연구 전략 소개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핵심 축인 저장·전달·운영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정책 기반과 육성 전략을 설명하며 광주·전남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켄텍은 'K-Grid 인제·창업 벨리'를 중심으로 전남·광주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 및 실증 연계 방향을 소개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비해 저장·전달·운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과 함께 기술을 검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기업 발표에서는 삼성SDI가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역할과

필요 기술을, 효성중공업은 중앙직류송전(MVDC) 기반 차세대 송배전 기술을, 한국전력공사는 차세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각각 다뤘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의 주요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분산형 전력망 분야의 최신 흐름을 살피고, 공동 연구와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켄텍은 앞으로도 분기별 산학 네트워킹을 통해 에너지 산업 현장의 수요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과 산업, 정책 간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트워킹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 전남 교원 네트워크, 진학지도 협력 모델 '주목'

도교육청 지원...대입제도 변화 대응  
교감·진학부장·상담교사 등 6개 분야  
서울 주요 15개 대학 분석 자료 개발

를 목표로 학교 현장 중심의 연구와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단순 정보 전달 방식의 연수를 넘어 교원들이 직접 자료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참여형 운영 방식으로 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28 대입전형 개발팀"을 중심으로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이후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모집인원 변화와 전형 구조를 자체 분석한 자료를 제작·공유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교과정성평가 반영이 확대되면서 단순 석차등급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업 역량과 교과 이수 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과목 선택과 학업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팀은 호남권 의과대학과 지역

인재전형 변화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며 전남 학생들의 지원 전략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통계 정리를 넘어 전형별·계열별 변화 흐름과 시사점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상담과 진학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네트워크 교원들은 대학별 변화 흐름을 공동 분석하며 자료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대교협 상담교사단과 대입정보지 개발·제작팀 역시 변화하는 입시 정보를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진학전문가 양성팀 또한 지속 가능한 진학지원 전문 인력 구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2028 대입 변화는 학교 현장의 빠른 분석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구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문화가 전남 일반고 진학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 호남대 RISE사업단 "늘봄 전문강사 200명 모집"

호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18일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026 함께 늘봄 전문강사'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 창의·과학, 기후·환경, 적응·정서, 교과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

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역 내 전문 인력으로, 관련 분야 교육 경험자와 현장 중심 프로그램 운영 가능자를 우대한다. 오는 2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선욱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광주 서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2026 광주·대구 달빛연합 SW-AI융합 수업 캠프'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市교육청, 달빛연합 SW AI융합 수업 캠프 '성료'

광주·대구 교사 60여명 참여  
AI·디지털 수업 사례 등 공유

업 캠프와 학생 해커톤 대회를 교사 개최하고 있다.

달빛연합 교육 협력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양 교육청의 AI·디지털 교육 정책,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와 교육자료 개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또 광주AI교육원 시설 견학, 생성형 AI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등이 진행됐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수업 캠프를 통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길 바란다"며 "광주와 대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협력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넓히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대구 지역 교사들이 AI·디지털 교육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광주와 대구 지역 AI 중점학교 및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교사, 교육전문직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주·대구 달빛연합 SW-AI융합 수업 캠프'를 운영했다.

광주시·대구시교육청은 2021년 'SW-AI 융합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매년 교사 수

1332

신고전화 국번없이

## 실손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

# 2026. 1. 12. (월) ~ 10. 31. (토)

##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병원관계자 5,000만원

· 보험사기유인·알선 권유 행위

· 브로커 3,000만원

· 미용 성형시술 후 허위청구 행위

· 환자 1,000만원

· 진료비 영수증 조작기 행위

· 허위 입·통원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